

■ 2026년 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신작 연극 분야 3차 실연심의 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6년 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신작 연극 분야 3차 실연심의
- 회의일시 : 2026년 4월 15일(수) ~ 4월 17일(금)
- 회의장소 : 아르코꿈발극장
- 심의위원명(가나다순) : 박찬영, 박해성, 송윤정, 이성곤, 이시원, 이지은

<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신작> 연극분야 실연심의는 동시대성과 예술적 수월성, 그리고 실험성과 다양성을 갖춘 우수 신작을 발굴하고자 하는 본 사업의 취지 아래 진행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우수 작품 발굴과 지원을 통해 한국 연극의 창작 기반을 확장하고, 동시대 공연예술의 미학적 발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실연심의는 4월 15일부터 4월 17일까지 3일간 아르코꿈발극장에서 진행되었으며, 총 9편의 작품이 60분 낭독형 실연 형식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짧은 시간과 제한된 형식이었지만, 각 작품의 기획의도와 연출 방향, 그리고 전달하고자 하는 바는 또렷하게 드러났습니다. 참여 작품들은 뚜렷한 주제의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소재와 시선을 제시하며, 사회를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과 관객에게 사유의 시간을 건네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각 작품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동시대 관객과 만나며 창작적 시도와 구현의 흐름을 드러냈고, 이러한 맥락에서 이번 실연심의는 오늘의 연극이 시대를 바라보는 방식을 체감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심의는 작품의 예술성(40%), 사업계획의 타당성(30%), 사업계획의 공공성(10%), 관객평가(20%)를 기준으로 진행되었으며, 창의성과 독창성, 무대화 가능성, 수행 인력의 적절성, 예산 및 일정 계획의 현실성, 관객 개발 및 확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심의대상 사업의 구성원과의 활동 이력이 있거나 직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심의위원은 해당 사업의 심의에서 명확히 회피하였습니다. 관객평가단의 평가는 작품의 완성도 및 독창성, 수용도, 향후 본공연 관람 의향 등을 고려하여 진행되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첫째, 작품이 제시하는 문제의식이 동시대적 맥락 속에서 설득력 있게 구현되고 있는지, 즉 단순한 소재를 넘어 이를 연극적 언어로 구체화하여 관객에게 전달할 수 있는 구조와 표현을 갖추고 있는지를 살폈습니다. 둘째, 형식과 내용 간의 유기적 결합 여부로, 다양한 형식적 시도 속에서 형식이 작품의 주제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셋째, 본공연으로의 발전 가능성과 지속성으로, 작품이 관객과 꾸준히 만날 수 있는 실행력과 확장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준은 본 사업에서 강조되어 온 동시대성과 관객 소통의 중요성과도 맥을 같이 합니다.

실연심의의 참여 작품들은 전반적으로 다채로운 주제와 형식을 통해 의미 있는 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다만, 일부 작품에서는 주제의식이 장면 구성이나 인물 간 관계 속에서 충분히 구체화되지 못하거나 서사 전개 과정에서 설명적 요소가 두드러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향후 창작 과정에서 보완될 경우 작품의 완성도를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선정된 작품들은 공통적으로 실연의 결과가 1,2차 심의를 통해 확인된 기대를 충족하고 있었으며, 희곡을 무대화하는 과정에서 이를 구현하기 위한 연출 방향과 구조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제한된 실연 환경 속에서도 작품의 핵심적인 장면 구성과 정서적 흐름이 안정적으로 드러났고, 본공연으로 확장될 경우 예술적 완성도가 더욱 향상될 가능성이 보였습니다. 아울러 창작진의 구성과 제작 계획의 현실성 역시 주요한 선정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예산 배분에 있어서는 지원 작품 수 확대와 개별 작품의 완성도 확보 사이에서 균형 있는 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 심의위원회는 본 사업의 취지를 고려하여 선정된 작품들이 안정적인 제작 환경 속에서 본공연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각 작품의 제작 계획 및 환경을 고려하여 지원금액을 결정하였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이와 같은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총 5편의 작품에 대해 851,000,000원을 지원 결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실연심의에 참여한 모든 창작진과 단체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실연심의에 참여한 작품들은 각기 뚜렷한 문제의식과 고유한 시선을 바탕으로 의미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으며, 그 자체로 이미 충분한 완성도와 고유한 성과를 보여준 작업들이었습니다. 모든 작품을 관객에게 소개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 아쉬운 마음을 전하며, 또 다른 기회를 통해 각 단체가 보여준 시도와 고민이 무대 위에서 다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선정된 단체들에는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공연 제작 과정에서 작품이 지닌 질문과 의도를 더욱 깊이 있게 발전시켜, 동시대 관객과 밀도 있게 호흡하는 공연으로 완성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실연심의에 함께해 준 관객평가단 여러분께도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여러 차례의 심의 과정 속에서 성실하게 준비해 준 모든 단체와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본 사업이 한국 연극 창작 생태계의 중요한 기반으로 자리한 만큼, 앞으로도 창작 활동을 뒷받침하며 더욱 확장되기를 기대합니다.

2026년도 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신작 연극 분야 심의위원 일동